

JP와 조각

김종필 전 총리가 그림을 잘 그린 것은 일요화가회 활동 등을 통해 세간에 잘 알려져 있다. 두 번에 걸쳐 “JP화첩”을 발간하였고 단독으로 전시회를 여는 등 여러 활동으로 그의 작품들은 그동안 많이 소개되었다. 그러나 그는 회화 이외에도 건축, 조각 등 다른 분야에도 깊은 인연이 있는데 그림보다는 잘 알려져 있지 않다.

애국선열조상彫像 건립

1967년 민주공화당 의장 시절 민족기록화를 그려보자고 화단에 제의했을 때, ‘애국선열 조상彫像건립위원회’도 발족되었고, 김종필 당시 민주공화당 당의장이 초대 위원장을 맡았다. 조상건립위도 민족적 자부심과 국민적 재건의 의지를 불러일으키기 위한 정신운동으로 기획된 것이다. 박정희 대통령은 JP에게 “세종로 네거리에 일본이 가장 무서워하고 외경畏敬의 대상이 될 인물의 동상을 세우라”고 주문했고 그 인물은 바로 이순신이었다. 충무공 동상의 제작은 김세중 서울대 미대 교수가 맡았고 68년 4월 27

일 서울 세종로 광화문 네거리에 높이 18m에 달하는 충무공의 동상이 제막되었다. 조상건립위의 첫 번째 작품이었다. 제막식에는 박 대통령과 육영수 여사, 3부 요인이 참석했고 김종필 건립위원장이 경과보고를 했다.

충무공 동상 제막식 일주일 뒤에는 덕수궁 중화전 앞에 세종대왕 동상을 세웠다. 이 동상은 김종필 당의장이 동상 만드는 재원財源을 대고, 김경승 이화여대 교수가 제작했다. 이 세종대왕상은 2012년 덕수궁 원형 복원공사 때 청량리에 있는 세종대왕기념관으로 옮겼다.

국무총리 시절인 73년 12월엔 이순신 장군과 세종대왕의 대리석 입상을 만들어 중앙청 중앙홀에 세웠다. 김총리가 그리스산 대리석을 구해 역시 김경승 교수에게 제작을 맡긴 것이다. 이순신 장군은 무(武)의 상징, 세종대왕



부여 국제 현대 조각 심포지엄'에서 제작, 설치된 작품 Mauro Staccioli(Italy)



Chu Ko(Taiwan)

은 문(文)의 상징으로 한국 역사를 대표하는 인물이다. 국가 지도자들이 문과 무가 균형 잡힌 국정을 이끌어야 한다는 생각이었다. 두 대리석 입상은 96년 중앙청 건물이 철거되면서 여의도 국회의사당 중앙현관으로 옮겨져 드나드는 국회의원들의 출입을 지금도 지켜보고 있다.

두 번째 총리 때인 98년에는 고향 충남 부여의 백마강(白馬江) 강변 부산(浮山) 절벽 바위에 계백 장군과 세종대왕, 이순신 장군, 신사임당 네 분의 얼굴을 새기려고 했다. 미국 사우스다코다주(州) 러시모어산에 워싱턴, 제퍼슨, 링컨, 시어도어 루스벨트 등 4명 대통령의 얼굴을 새긴 조각상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시도하려 한 것이었다. 예산 20억원을 확보하고 그림 선생인 박광진 교수와 여러 조각가들이 동원되어 기초 작업을 하였지만 문화재위원들이 산의 원형을 훼손한다고 반대해 계획이 실현되지는 않았다. 운정은 그의 증언록에서 그때 조각상이 완성했다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위인 명승지가 됐을 것이라고 아쉬움을 토로한 바 있다.

이러한 아쉬움과 함께 광화문 광장에 국방의 이순신 장



1973.10.22. 제22회 국전에서 조각 작품을 감상하고 있다. 오른쪽은 윤주영 문공부 장관.

군, 과학문화의 세종대왕과 함께 이 나라 경제를 일으켜 세운 재계의 두 거물, 삼성의 이병철 회장과 현대의 정주영 회장의 동상을 세울 것을 주장했다. 아울러 세종대왕 좌상 뒤에 건국 대통령인 이승만 박사와 조국 근대화를 이룩한 박정희 대통령의 동상이 세워지기를 소망하였다. 그렇게 되어야 광화문 광장에 우리의 자랑스러운 역사가 모두 모이게 된다는 것이다.

'제1회 부여 국제 현대조각 심포지엄'과 구드레 조각공원 조성

1999년 4월 16일부터 한달간 부여 구드레 공원 조각 공원에서 열린 '제1회 부여 국제 현대조각 심포지엄'은 운정의 고향 부여에 대한 사랑과 조각에 대한 관심을 보여준 큰 행사라 할 수 있다. 이탈리아의 모로 스타치올리, 멕시코의 조르주 뒤 봉, 일본의 도찌미수 이마이, 아르헨티나의 줄리아 파쟈트 등 세계적인 외국 작가 24명과 한창조, 박찬갑 등 국내작가 6명이 참가하여 백마강변 구드레 나루터 백사장에서 각자 작품활동을 벌이며 완성된 작품들은 백제 고도의 예술혼을 살리는데 중요한 계기가 되었음이 분명하다.

지금도 부여 군청 앞에 자비를 들여 제작 설치한 계백장군의 동상은 JP가 백제와 부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보여주는 표상으로 두고두고 회자될 것이다. 雲庭



김종필 총리가 고향인 충남 부여에서 열린 제1회 부여 국제조각심포지엄 행사장에서 거북 조각상을 자세히 들여 다보고 있다. 김종필 총리 오른쪽은 유병돈 당시 부여군수. (1999. 4. 28)